

고정옥의 시에 나타난 자아성찰과 사회의식의 궤적

박 경 수*

1. 들머리
2. 고정옥의 시 작품 개관과 경향성의 구분
3. 경성제2고보 시절 시에 나타난 자아인식과 민족현실의 자각
4. 경성제대 시절 시에 나타난 반제투쟁의 사회의식
5. 마무리

<국문초록>

이 글은 고정옥의 시 작품들을 찾아서 그의 시가 보여주는 내면적 자아성찰과 사회의식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시인의 생애 궤적과 연동된 국면들을 함께 살피고자 한 것이다.

고정옥의 시로 모두 23편을 찾을 수 있었다. 경성제2고보 시절에 발표한 시가 13편, 경성제대 예과시절에 발표한 시가 9편, 본과에 재입학하기 전 집행유예 기간에 ‘위민(渭民)’이란 필명으로 발표한 시가 1편이다.

고정옥의 고보시절 시는 시적 자아가 처한 세계에 대한 내면의식을 표출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당대의 현실을 ‘병든 시계’와 같이 비정상적인 세상으로 본다. 암담한 민족 현실로부터 자각된 비극적 세계인식이다. 이런 비극적 세계인식에서 자아의 존재는 왜소화되거나 우울과 허무감에 빠지면서 때로는 종말론적 세계인식으로 치닫기도 했다. 그렇지만 시적 자아가 허무와 절망감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이나 기대로 표출되었다.

고정옥의 대학시절 시는 사회현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함께 청자 지향

*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kspark1221@naver.com)

의 설득적 목소리를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시작품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서술적 경향을 보인다. 메시지 중심 시로 대사회적 인식을 뚜렷하게 표명하고 있다. 고정옥이 독서회 활동에 참가한 이후 ‘집-자아’에서 벗어나서 ‘거리-민중’으로 시선 변화를 보여준다.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사회의식과 민족의식이 결부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고위민(高渭民) 외에 고영민(高嶺民)이란 또 다른 필명을 썼을 개연성을 제기했다.

* 주요어: 고정옥, 고위민, 비극적 세계인식, 사회의식, 민족의식

1. 들머리

고정옥(高鼎玉, 1911~1968)은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로 약칭, 현 서울대학교) 출신 교수로 있는 동안 『조선민요연구』(1949)를 비롯한 『국어국문학요강』(1949), 『국문학개론』(1949) 등의 저술을 남긴 국문학자이자 민요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¹⁾ 그런데 6·25전쟁 기간에 북한을 선택하여 김일성대학 교수로 있던 이력 때문에 남북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당 기간 그의 생애와 학문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야 고정옥의 생애를 가능한 대로 밝히면서 학문 업적을 재조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고정옥의 생애와 연구 관련 자료들을 폭넓게 조사한 바탕 위에서 그의 생애사와 연구사를 가능한 대로 복원하기 위한 연구를 신동훈이 앞장서서 수행했다.²⁾ 신동훈의 연구를 통해 고정옥이 청년기에 쓴 시 작품들과 영화평

1) 고정옥이 남긴 주요 저술의 서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② 『국어국문학요강』, 대학출판사, 1949. ③ 우리어문학회 편, 『국문학개론』, 일성당 서점, 1949. 이들 외에 그가 김일성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쓴 『조선국전문학연구』(평양: 과학원출판사, 1962)가 있다.

2) 신동훈이 고정옥의 생애와 학문을 고찰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① 「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상)」, 『민족문학사연구』 7,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1995, 270~316쪽. ② 「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하)」, 『민족문학사연구』 8,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의 면모가 처음으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³⁾ 당시에 찾은 고정옥의 시 작품이 20편, 영화평(비평론 포함)이 3편이다. 20편이나 되는 시 작품들도 당연히 주목되지만, 영화평과 영화 관련 시 작품 2편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면 고정옥이 영화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졌음이 드러난다. 이후 필자는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 등 일련의 구비문학 저술에 나타난 연구의 관점 변화와 저술에 인용된 함양지역 민요 관련 민요학의 성격을 살피고,⁴⁾ 고정옥의 생애와 학문 사상을 추적하는 연구⁵⁾를 수행했다.

고정옥이 시와 영화평을 주로 쓴 시기는 경성제2고등보통학교(이하 ‘경성제2고보’로 약칭, 현 경북고등학교) 3학년 재학 때인 1927년부터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여 예과시절을 보낸 1930년까지이다. 이후 반제동맹 활동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선고를 받은 집행유예 기간인 1935년에 시 1편을 발표했다. 이 기간까지 고정옥이 시뿐만 아니라 소설 창작, 영화 강연 등의 활동이 있었음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여러 일간지 매체를 통해 독자 투고로 발표되었는데, 신동훈이 찾은 20편 외에 3편을 추가로 더 찾았다.⁶⁾ 고정옥이 소설도 창작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찾은 작품과 자료를 통해 드러난다.⁷⁾ 영화에 대한 관심도 추가로 찾은 영화평과 영화

1995, 221~241쪽.

3) 신동훈, 위의 글(『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상)』, 273~285쪽.

4) 박경수, 「고정옥 민요 연구의 관점 변화와 인용 민요 자료의 성격」, 『한국민요학』 57, 한국민요학회, 2019, 7~39쪽. 이 글에서 고정옥의 민요론 등 구비문학 연구의 주요 성과들을 검토(8~13쪽)한 바 있다.

5) 박경수, 「고정옥의 인생과 학문 사상」, 이재현 외, 『함양지역의 인문학적 과제』, 청동거울, 2019, 219~285쪽.

6) 고정옥의 시로 추가로 찾은 3편은 <가을이 오니>(『중외일보』, 1929.10.1.), ② <북극(北極)의 침대(寢臺)>(『동아일보』, 1930.2.28.), ③ <첫녀름>(『조선일보』, 1935.7.12.)이다. 이들 중 ③은 ‘위민(渭民)’이란 필명으로 발표되었다.

7) 고정옥이 1930년 『동아일보』 ‘신춘현상문예’ 단편소설 부문에서 <창일(昌一)과 영란(英蘭)>이 ‘선외가작’으로 당선되었다는 기사(『동아일보』, 1930.1.31.)를 접할 수 있다. 선외가작으로 당선되었던 까닭에 해당 소설은 게재되지 못했다. 경성제대 예과시절에 일본어로 쓴 소설 <시크(雪)>을 『청량(淸涼)』 제9호(경성제국대학 예과학생회, 1930.7.)에 발표했다. 1935년에는 올더스 헉슬리(Aldous L. Huxley, 1894~1963)의 소설을 번역한 <초연(初戀)>을 ‘고위민(高渭民)’이란 필명으로 『조선일보』에 연재(1935.5.3.~5.16., 8회 연재)했으며, 같은 필명으로 소설 <재회(再會)>를 『조선중앙일보』에 연재(1935.10.25.~11.3., 8회 연재) 발표했다. 노상래, 「『청량』 소재 이중어 소설에 대한 일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35, 현대문학

강연 활동 기록⁸⁾을 통해 좀 더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

고정옥이 청년기에 쓴 시와 소설을 포함한 문학 작품과 영화평은, 그의 생애에서 일정한 시기에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정 시기 문학과 영화에 열정을 쏟은 문학과 영화평론가로서의 면모를 구축한다. 그의 생애와 학문적 도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문학 작품과 영화평은 유효한 자원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고보시절과 대학시절의 접점을 이루는 시기에 쓴 글 자체가 당시 고정옥이 삶과 역사적 현실에 대해 느꼈을 내면적 고뇌와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고정옥이 집중적으로 시, 소설, 영화평을 쓴 1927년부터 1930년까지는 사회주의 사상이 사회 전반으로 서서히 파급되었던 시기이다. 고향 함양을 떠나 홀로 경성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청년 고정옥이 이런 사회적 조류와 분위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실제로 경성제대 예과시절 고정옥은 비밀결사의 성격을 지닌 독서회에서 반제동맹으로 발전한 단체에 가담하여 반제운동의 주요 인물로 활동하게 된다.⁹⁾ 고정옥은 결국 1932년 들어 일경에게 붙잡혀 징역 1년 반, 집행유예 3년을 언도 받고 경성제대에서도 퇴학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고정옥은 1936년 ‘조선어문학’ 전공으로 재입학¹⁰⁾을 하기 전, 집

이론학회, 2008, 89~92쪽에서 고정옥의 일본어 소설을 논의한 바 있다.

8) 고정옥이 『중외일보』에 「라보엠을 보고」(1928.6.24.)란 영화평을 처음 투고 발표한 다음, 고향 함양에 내려가서 ‘함양학술강연(咸陽學術講演)’으로 「영화(映畵)란 무엇이나」를 강연하기도 했다(『동아일보』, 1928.8.6.). 신동훈이 찾은 영화평 2편은 『동아일보』의 ‘극과 영화’란에 독자 투고로 발표한 ① 「템페스트 인상(印象)」(1929.11.5.), ② 「파리(巴里)의 아팻슈」(1929.11.12.)이며, 영화평론 1편은 『조선일보』의 ‘영화(映畵)·연예(演藝)’란에 전문가의 글로 3회 연재한 ③ 「프로영화교육론(映畵教育論)」(1930.4.23~24, 26)이다. 이밖에 경성제대 예과시절에 발표한 시 〈북극(北極)의 침대(寢臺)〉(『동아일보』, 1930.2.28.)도 클레오파트라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쓴 것으로 파악된다.

9)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156~158쪽, 168~171쪽, 179~196쪽. 이 책의 해당 지면에서 경성제대 독서회와 반제동맹의 활동에 대해 자세하게 쓰고 있다.

10) 고정옥은 예과 다음 본과에서는 영문학 전공을 선택했다. 미국과 유럽의 영화에 대한 관심이 전공 선택의 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재입학하면서 선택한 전공은 ‘조선어문학’이다. 시, 소설을 창작했던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고향 함양에서 민요를 조사했던 경험이 조선어문학 전공을 선택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신동훈, 앞의 글(「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상)」, 288쪽에서 고정옥이 집행유예 기간에 함양에서 민요를 수집했다는 친지의 증언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함양 민요 조사 시기를 당시로 소급하기가 주저된다. 본과 진학 후 지도교수인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과제 수행과 졸

행유에 마지막 기간인 1935년부터 다시 펜을 들어 문학청년의 모습을 보였다. 이때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고위민(高渭民) 또는 위민(渭民)이란 필명¹¹⁾으로 시를 발표하거나 소설 번역 및 창작 활동을 했다.

이 글에서 고정옥이 청년기에 발표한 시 작품들을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¹²⁾ 기존에 조사된 20편과 새로 찾은 3편을 포함하면 시 작품은 모두 23편이 된다. 이들 시 작품들은 문학청년으로서 한때 시인의 길을 갔던 고정옥의 면모를 파악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 기존 논의가 고정옥의 생애에서 공백 상태에 있던 청년기의 활동 국면을 가능한 대로 파악하기 위해 그의 시 작품들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했다면, 이 글은 고정옥의 생애 복원을 넘어서 전체 시를 대상으로 시학적 측면에서 본격 논의하고자 한다. 고정옥의 시는 당시 발표 상황과 전개 국면을 고려하면 고보시절과 대학시절의 시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시기의 시가 갖는 시적 형상화의 측면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사회시학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시적 형상화의 측면에서 시 작품들에 나타난 시적 비유나 상징의 기법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그것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특히 주목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 고정옥이 남긴 시를 통해 당시 성장 서사에서 청년기에 가졌던 내성적이면서도 비판적인 또는 저항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한편, 당대의 삶과 역사현실에 대해 깊이 고뇌했던 흔적들을 찾아볼 것이다. 이는 고정옥의 시에 깃든 내면의식과 사상 변화의 궤적을 시학적 토대 위에서 신중하게 살펴서 읽어내는 일이다.

업논문 준비를 위해 함양에서 민요를 조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11) '고위민(高渭民)' 또는 '위민(渭民)'이란 필명에서 '위민(渭民)'이 '위민(爲民)'과 발음이 같다는 점에서 필명이 고정옥의 민중의식 또는 민족의식을 은밀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필명에 쓰인 한자 '위(渭)'가 진나라의 위성(渭城)인 당시 수도 함양(咸陽)을 일컫는다고 보면, 위민(渭民)에서 위(渭)가 고향 함양(咸陽)을 상기하면서 함양 사람인 고정옥 자신을 달리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위민(高渭民)이란 필명으로 발표한 글로 「조선 민요의 분류」(『춘추』 2:3, 1941.4.)가 더 있다.

12) 이 글은 박경수, 앞의 글(「고정옥의 인생과 학문 사상」), 221~228쪽에서 고정옥의 시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분리하여, 해당 내용을 전면 수정, 보완하여 쓴 글임을 밝혀둔다.

2. 고정옥의 시 작품 개관과 경향성의 구분

고정옥은 함양공립보통학교를 1924년에 졸업한 후 바로 경성제2고보에 입학하게 된다. 학업을 더해 전도가 유망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를 안고 고향 함양을 떠나 경성제2고보로 진학했다.

경성제2고보 4, 5학년 때의 학적부 기록에 따르면, ‘성질’란에 온화하고 사색적이라는 평에 ‘비판적’이라는 지적이 붙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 ‘품행’에서 거의 ‘양(良)’을 받았지만 3학년 때는 ‘불가(不可)’를 받기도 했고, 재학 중 결석일 수가 총 34일에 이른다고 했다.¹³⁾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면, 고정옥은 청년기에 내성적인 성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기질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정옥은 경성제2고보 시절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기질이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제대에 진학한 후에는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기질은 현실 참여 활동을 통해 실천되었다. 경성제국대학 예과 시절 독서회와 이를 매개로 발전된 반제동맹에 가담하여 적극 활동한 이력 등이 이를 말해준다.

고정옥이 경성제2고보 3~5학년 상급반 시절부터 경성제대 예과시절에 이르는 1927년부터 1930년까지 발표된 시 22편, 경성제대 퇴학 후 집행유예 기간인 1935년에 발표된 시 1편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확인되는 시는 23편이다.¹⁴⁾ 이들 시 작품들을 발표 순서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정옥의 시 작품 목록

구분	순서	제목	게재지	게재시기	비고
경성 제2고보 시절	01	실비 나리든(*내리던) 바다의 추억(追憶) ¹⁵⁾	조선일보	1927. 11. 28.	
	02	그대 게실(*계실) 때는	조선일보	1927. 12. 14.	
	03	쁘-텐양(孃)의 인상화(印象畵)	조선일보	1927. 12. 21.	영화시

13) 신동훈, 앞의 글(「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상)」), 272쪽.

14) 고정옥은 고위민(高渭民) 외에 고영민(高嶺民)이란 필명을 사용했을 개연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고영민(高嶺民)으로 발표한 시를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

구분	순서	제목	게재지	게재시기	비고
경성제2고보 시절	04	못 가겠네(*가겠네)	조선일보	1928. 1. 15.	
	05	눈	조선일보	1928. 2. 8.	
	06	제야(除夜)	조선일보	1928. 2. 8.	
	07	돌로레스 돌레오양(孺)의 초상화(肖像畵)	조선일보	1928. 2. 24.	영화시
	08	기력아?	조선일보	1928. 2. 28.	
	09	병(病)든 시계(時計)	조선일보	1928. 3. 22.	
	10	마음	조선일보	1928. 11. 27.	
	11	우울(憂鬱)	조선일보	1929. 1. 9.	
	12	눈 내리는 이월(二月)의 밤	조선일보	1929. 2. 7.	
	13	물망초(勿忘草)	조선일보	1929. 2. 19.	소곡(小曲)
경성제국 대학 예과시절	14	가을이 오니	중외일보	1929. 10. 1.	*신
	15	삶의 값(*값)	동아일보	1929. 11. 6.	
	16	생활(生活)의 거리	동아일보	1929. 11. 11.	
	17	일기시(日記詩)	동아일보	1929. 11. 17.	
	18	동모여! -조선(朝鮮)의 학도(學徒)들에게	동아일보	1929. 12. 20.	
	19	감정양기(感情揚棄)	동아일보	1930. 1. 21.	
	20	동모여 나아오라 우리의 일터로	동아일보	1930. 2. 5.	
	21	북극(北極)의 침대(寢臺)	동아일보	1930. 2. 28.	*신/영화시
	22	님이여!	조선일보	1930. 4. 6.	
집행유예 기간	23	첫너름(*첫여름)	조선일보	1935. 7. 12.	필명: 위민(渭民) *신
소계	23편		*신'은 필자가 새로 찾은 시 작품임.		

에서 상당수 찾을 수 있다. 이들 시 작품들이 고위민(高渭民)으로 발표한 시나 소설처럼 1935년 이후에 발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고령(高嶺)이 지리산을 뜻하는 명칭으로 본다면, 고영민(高嶺民)은 지리산 아래 위치한 함양 사람인 고정옥을 지칭하는 필명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고영민(高嶺民)이나 그의 시를 논박한 글은 검색되지 않는다. 앞으로 고영민(高嶺民)의 본명을 실증하는 일이 과제이다. 고정옥(高嶺民)이 고정옥의 필명으로 확인된다면, 고정옥의 시 작품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15) * 표시 내용은 필자 주석. 이하 동일.

고정옥의 시는 모두 일간지 매체에만 발표되었다. 틈틈이 쓴 시 작품들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표할 수 있는 매체로 일간지 신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한다. 일간지 신문이 대중적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들에게 널리 읽히는 점을 고려하고, 신문에 독자 투고한 시가 게재될 때마다 소소한 원고료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나름대로 계산에 넣었을 수도 있다.

고정옥의 시는 1935년에 발표된 시까지 포함해서 보면 길게는 9년, 해당 시를 빼고 보면 짧게는 4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발표되었다. 어떤 경우든 길지 않는 기간이지만, 경성제2고보 시절에 쓴 시와 경성제대 입학 후에 쓴 시들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시가 놓인 배경이 일단 고보시절과 대학시절로 다르다. 시가 발표된 환경적 배경이 다르다 보니 시의 경향성이 달리 나타난다. 고보시절의 시가 시적 자아의 성찰로부터 민족현실에 대한 자각적 인식으로 확장, 심화되어 간 측면이 강하다면, 대학 시절의 시는 민족현실에 대한 자각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적극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도모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경성제2고보 시절에는 『조선일보』에만 시를 발표했다. 모두 13편이다. 영화를 감상하고 쓴 시 2편과 ‘소곡(小曲)’이란 갈래 명을 붙여 발표한 시 1편이 포함되어 있다. 영화 감상 시편인 <보-덴양(嬢)의 인상화(印象畵)>와 <돌로레스 돌레오양(嬢)의 초상화(肖像畵)>는 제목만 보더라도, 영화 속 여배우에 대한 선망의식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기에 고정옥이 가졌던 이국 여성에 대한 동경, 일종의 이국정조(exoticism)를 나타낸다. ‘소곡’이라 붙인 시 <물망초(勿忘草)>는 민요의 리듬과 형식을 바탕으로 쓴 이른바 ‘민요시’로, 민요로 발표한 <못 가갯네>와 함께 고정옥이 당시에 가졌던 시의 형태 또는 갈래에 대한 관심의 일면을 보여준다. 고보시절 후기에 발표한 <병(病)든 시계(時計)>, <마음>, <우울(憂鬱)>은 고정옥의 현실인식과 함께 불안정한 내면의식을 표현하고 있음이 제목에서부터 드러난다.

경성제대 입학 후에는 시를 투고하여 발표하는 일간지 매체를 확대한다. 『조선일보』 외에도 『동아일보』와 『중외일보』를 더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발표한 시 1편을 포함하면 이들 일간지 매체에 발표한 시는 모두 10편이다. 새로 찾은 시 3편이 이들 중에 들어 있다. 시의 제목만 보더라도 고보시절 시와

다른 점이 드러난다. 시의 제목에 ‘삶’, ‘생활’이 보이고, ‘동모여’라고 호명하는 시가 2편이다. 경성제대 시절 시가 삶의 현실을 적극 성찰하면서 ‘동모’ 즉 집단을 향한 현실변혁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면모를 보여준다. 이 시기에 고정옥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회주의 사상의 학습 면모와 함께 현실참여적인 의식을 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3. 경성제2고보 시절 시에 나타난 자아인식과 민족현실의 자각

고정옥이 경성제2고보 시절에 발표한 시는 무엇보다 고향 함양에서 생활했던 환경과 달라진 도시 경성의 환경을 배경으로 한다. 도시 경성에서 우선 변화된 생활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교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을 것이다. 경성제2고보 1~2학년 기간이 도시 생활에 나름대로 적응하기 위한 기간이 아니었을까 한다.

경성제2고보 1927년 3학년 말부터 고정옥은 시를 써서 일간지 매체에 투고하기 시작했다. 도시 경성에서의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처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민족현실을 자각하는 정신적 성숙을 시 작품을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때로는 답답하고 반복되는 일상과 학업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이성애에 대한 전망이나 자유로움을 향한 욕망을 영화 감상을 통해 대리 만족하려는 심리도 시를 통해 나타난다.

고정옥이 발표한 첫 시 작품인 〈실비 나리든(*내리든) 바다의 추억(追憶)〉을 보자.

고요한 바닷가에
이 한 밤을 실비가 울리네
젊은이의 두 뺨에 뿌리여
새파란 혼을 올리더니
바닷가에 고요한 이 밤을
또 다시 그 비가 울리노라

내리는 줄기줄기 빗발에
멀리 젖는 등댓불을 바라네
이 땅의 옛날을 멀금히(*'멀거니'의 방언) 세고 섰으니
마음 역시 눈물에 비에 젖어오도다

- <실비 나리든 바다의 추억(追憶)>(1927. 11. 28.) 중에서¹⁶⁾

이 시는 바다를 시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의 함양 출신인 고정옥에게 바다는 분명 새로운 감각과 감정을 느끼게 하는 시적 대상일 것이다. 경성에서 가까운 어느 곳에서 바다를 각별하게 경험하고 쓴 작품일 수 있다.

자유시 형식에 비교적 안정된 어조(tone)를 취하고 있지만, 시에 흐르는 주된 정서는 애상적이다. 실비가 내리는 가을 밤바다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젊은이'의 우울한 내면을 토로하고 있다. “울리네/울리더니/울리노라”와 같은 반복적인 어휘 사용, “뿌리여/젖어” 등의 하강 이미지가 ‘비’와 ‘눈물’의 이미지와 만나면서 애상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시적 자아인 젊은이는 밤바다를 향해 있으면서, 멀리 비에 젖고 있는 등댓불과 동일화된 슬픈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 땅의 옛날을 멀금히(*'멀거니) 세고 섰으니/마음 역시 눈물에 젖어오도다”라는 구절을 주목하게 된다. “이 땅의 옛날”이 국권을 상실한 역사 현실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신동훈도 “밤바다에서 비를 맞으며 우수에 젖어 있는 젊은이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라고 하면서도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환기시켜 눈물짓게 하는 것”¹⁷⁾이라고 했다. 이 시를 이와 같이 역사적 상황과 결부된 맥락으로 읽는다면, 시적 자아는 역사 현실에 대한 자각적 인식으로부터 슬픔의 근원을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역사 현실에 대한 자각이 더 이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고정옥의 시가 시적 자아의 애상적 정서만을 토로하는 시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고정옥 시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하게 한다.

16) 인용 시는 원문의 어휘와 띄어쓰기를 현대 한글맞춤법에 따라 고쳐서 표기한 것이다. 원문의 한자는 ‘한글(한자)’로 고쳐 썼다. 이후 인용 시도 같은 방식을 취한다.

17) 신동훈, 앞의 글(『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상)』), 275쪽.

고정옥의 시에서 시적 자아는 슬픔을 자아내는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런데 비극적인 현실에서 시적 자아는 좌절하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겨내고자 한다. 다음 시 〈그대 계실(*계실) 때는〉과 〈눈〉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 ① 한 잎의 겹 없는 외로운 몸이오
 물새 울음에도 따라 우는 마음이어늘
 지금같이 나의 마음에 그대가 계실 때는
 거룩하다 모든 것은 내 앞에 빛뿐이네
 (그대는 희망(希望)이다 이 희망(希望)을 파지(把持)만 하면
 사람은 빛에 차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 〈그대 계실 때는〉(1927. 12. 14.) 중에서

- ② 어둠 가운데 흰 손님 내려오시어
 검은 세계(世界)는 근저(根底)로부터
 채곡채곡 덮이어 가네
 ×
 동모여! 그쳐라! 눈 떠라!
 세계(世界)는 마침내 희게 될 것이다
 광대(廣大)한 공간(空間)이 백화(白化)치 않더라도
 뿌리에만 흰 양분(養分)이 있으리라
 반드시 가지와 꽃도 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흰 열매를 맛볼 것이다
 - 〈눈〉(1928. 2. 8.) 중에서

위의 두 작품들은 고독과 슬픔, 또는 어둠을 노래하는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①에서 시적 자아는 외로운 존재로 ‘풀 한 잎’과 동일시되고, “물새 울음에도 따라 우는” 마음을 가진 연약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외롭고 슬픈 마음을 지닌, 연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겹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것은 내 마음에 ‘그대’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대’는 이 시에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내 앞을 비추는 빛이며, 희망이라고 했다. 시적 자아는 이 거룩함과 빛과 희망인 ‘그대’를 파지하고자 한다. 여기서 ‘그대’는 1920년대 한용운 등의 시에서 나타나는 ‘님’의

존재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②의 시 <눈>에서는 ‘흰 눈’을 통해 역설적으로 어두운 현실을 자각하고 있다. 눈은 어둠 가운데 오는 ‘흰 손님’이며, 광대한 검은 세계를 하얗게 덮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했다. ‘흰’ 세계와 ‘검은’ 세계를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면서, 시적 자아는 ‘흰’ 눈으로부터 촉발되는 백화(白化)의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고 염원한다. ‘흰’ 눈이 어둠 속에서 ‘흰 양분(養分)’을 품은 뿌리로부터 ‘흰 가지와 꽃’이 피는 세상을 만들고, 그런 세상에서 ‘흰 열매’를 맛볼 그 날을 희망하고 꿈꾼다는 것이다. 여기서 ‘흰 양분’을 품은 뿌리는 어둡고 암담한 현실에 놓인 존재들, 곧 ‘백의민족(白衣民族)’이 가진 저력을 상징한다. 시적 화자는 ‘흰 눈’으로 촉발되는 시적 비유와 상상력을 통해 민족의 저력에 대한 믿음으로 ‘흰’ 세계, 즉 빛을 회복한 광명의 세상을 염원하는 의식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내부의 힘을 길러 언젠가 독립을 바라는 점진적 민족주의의 입장을 보이는 것과 같다. 이때만 해도 고정옥은 제국주의 현실에 맞서 투쟁하거나 저항하자는 강경한 입장에 있지 않았다.

고정옥이 『조선일보』(1928. 1. 15.)에 발표한 <못 가갯네(*가갯네)>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한 가지는 창작시가 아니라 ‘민요’라는 점이며, 다른 한 가지는 이 민요가 심각한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못가갯네 못가갯네
새등가튼 허리에다
태산가티 짐을지고
활등가티 구분길을
설대가티 못가갯네

못가갯네 못가갯네
어린동생 압세우곤
다리떨려 못가갯네
가시덤불 열킨길은
화살가티 못가갯네

- <못 가갯네>(1928. 1. 15.)의 전문¹⁸⁾

고정옥은 위의 〈뭇 가갯네〉를 신문 지면에 발표하면서 특별히 ‘민요’라는 갈래 표시를 하지 않았다.¹⁹⁾ 그렇다고 민요를 바탕으로 쓴 창작시도 아니다. 김소운이 편찬한 『언문조선구전민요집』(1933)에 〈뭇 가갯네〉와 동일한 민요가 강원도 철원 민요(1847번)로 올라 있다.²⁰⁾ 제보자는 철원군 철원면 관전리 주소를 둔 이규로(李奎路)이며, 이규로가 제보한 다른 민요 자료들과 함께 “신라시대(新羅時代)부터 경상도(慶尙道)에 전하는 노래”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이 주석에 따르면 고정옥이 고향 함양에서 이 민요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고정옥이 〈뭇 가갯네〉를 『조선일보』에 발표한 때는 김소운이 『언문조선구전민요집』을 편찬하기 위해 『매일신보』 독자들로부터 민요 제보를 받았던 1930년보다 시기가 2년 이상 앞선다. 누군가 제보했던 민요를 고정옥이 재차 발표한 것은 분명 아니다. 고정옥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법한 이 민요를 왜 신문 지상에 발표했을까? 이 민요가 당대의 힘들고 고된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적 상상력에 의한 시적 비유가 창작시 못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뭇 가갯네〉는 민요 자체로 보아도 시적 상상력을 높이 감쌀 만하다. 민요에서 화자는 ‘뭇 가갯네’라고 반복적으로 하소연을 한다. 그 까닭은 넘어가야 할 길이 “활동같이 구분(*굽은) 길”과 “가시덤불 얼킨(*엷힌) 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길’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축자적인 의미로 화자가 넘어가

18) 민요의 본래 모습을 고려하여 원문대로 표기했다. 단, 이중자음(ㄷ)은 겹자음(ㄷㄷ)으로 표기했다.

19) 당시 『조선일보』 지면에 독자 투고로 전승민요 또는 민요 바탕 창작시가 ‘민요’란에 이따금 발표되었다. 『조선일보』 1927년 12월 17일에 ‘무자생(撫子生)’의 민요가 발표되었고, 〈뭇 가갯네〉가 발표되기 전인 『조선일보』 1928년 1월 12일과 13일 지면에도 ‘민요’란에 시가 발표되었다. 〈뭇 가갯네〉도 별도 갈래 표시는 없지만, 고정옥이 ‘민요’로 투고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20) 〈뭇 가갯네〉는 김소운이 편찬한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487쪽(1847번)에 수록되어 있다. 제보자는 이규로(李奎路)이다.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수록된 민요들은 『매일신보』(1930.5.10.~12.21.)에 독자들이 제보한 민요 자료들 중에서 선별된 것들이 대부분인데, 제보자 이규로가 『매일신보』 지면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1949)에도 〈뭇 가갯네〉가 인용 민요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덧붙여 둔다.

야 할 험난한 길이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고난과 역경의 인생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못 가갯네>에서 '새 등-허리, 태산-짐, 활 등-굽은 길, 설대- 곧음, 가시덤불-엷인 길, 화살-빠름'과 같이 대응적으로 이루어진 시적 비유와 암시적 의미가, 비록 과장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곤경에 처한 화자의 처지와 현실 상황을 실감나게 한다. 극도의 궁핍한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중국 만주나 소련 연해주 등으로 떠났던 술한 유이민들이 갔던 길, 꼭 그런 유랑의 길이 아니더라도 일제강점기 한민족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의 현실을 떠올리게도 한다. <못 가갯네>는 이런 점에서 곤경에 처한 민족의 고통스런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고정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 하면서 감쌀 만한 시적 비유와 상징성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 민요를 특정하여 투고하지 않았을까 한다.

고정옥이 민요 <못 가갯네>에서 말한 고통스런 민족현실은 그의 시에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묘사된다. 신음하는 병자들의 세계이거나 병든 시계와 같이 고장 난 세상이다. 다음 작품들을 보자.

- ① 분수령(分水嶺)에 걸터앉아 지내어온 발자취를 멀금히(*멀거니) 세고 내려갈 새 길을 「입」과 「몸」으로 신음하는 병자(病者)야! 보이는 발자취를 흙으로 묻어버리고 좌우(左右) 행로(行路)의 다름을 제멸(除滅)해야 뒤따르는 군중(群衆)들에게 티끌 없는 새 길을 개척(開拓)하여 주라 뒤따르는 군중(群衆)들 -너의 마음으로 하여금 옛 기억(記憶)을 환생(還生)케 말라 그제야 너의 몸도 탈천(脫天)하며 우화등선(羽化登仙)도 하리니

- <제야(除夜)>(1928. 2. 8.) 중에서

- ② 병(病)든 시계(時計)를 아무리 애써 흔드나 마침내 갈 리(理)가 업다
직각직각……무거운 발목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시름없이 걷다가 마침내 그대로 쓰러져버린다

×

이 사람아!

병(病)든 시계(時計)를 흔들지 말고

마음 속 파도(波濤)를 진정(鎮定)하여

방책(方策)을 세워 저 자석 기계(機械)를 고쳐 보라

- <병(病)든 시계(時計)>(1928. 3. 22.) 중에서

①의 시 〈제야(除夜)〉에서 역사의 분수령을 맞아 ‘새 길’을 찾지 못하고 신음하는 병자를 시적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입」과 「몸」으로 신음하는” 병자이다. ‘입’과 ‘몸’으로 신음하는 병자는 어떤 병자일까? 여기서 ‘입’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환유(metonymy)로, ‘몸’은 행동의 자유를 환유하는 것으로 읽힌다. “「입」과 「몸」으로 신음하는” 병자는 곧 언론과 행동의 자유를 빼앗긴 식민지 백성에 다름아니다.

시 〈제야(除夜)〉에서 시적 청자인 병자는 ‘너’로 호명된다. 이 ‘너’에게 언론과 행동의 자유를 빼앗긴 불구의 존재임에도 뒤따르는 군중들이 갈, 깨끗한 새 길을 개척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지나온 “발자취를 흙으로 묻어버리고 좌우(左右) 행로(行路)의 다름을 제멸(除滅)하야”야 하고, “옛 기억(記憶)을 환생(還生)케 말라”고 했다. 여기서 ‘좌우 행로’는 당시 민족(또는 국민) 대 민중(또는 계급)을 내세우는 이념적 갈등을 말하고, “옛 기억”은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국권 상실’의 역사로 읽힌다. 시의 화자는 곧 좌우로 갈라진 이념적 갈등도 없애고 ‘국권 상실’의 아픈 역사의 기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현실의 험한 분수령을 넘어 ‘탈천(脫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이처럼 과거에 얽매인 의식을 버릴 때 새로운 역사를 세워야 하는 이유와 임무도 자각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를 실현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실현 불가능성 때문에 시 〈기력아?〉(1928. 2. 28)에서는 “높은 하늘 네 나라에 자유(自由)스런 몸을/한탄함이 웬 일이고 —이내 몸엔 까닭이나 있건만—”이라 하며 탄식하는 목소리로 표명되기도 했다. 기러기가 나는 ‘자유로운 나라’를 통해 ‘자유가 없는 나라’에 몸을 둔 자아를 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②의 시 〈병(病)든 시계(時計)〉에서 시적 화자는 “병(病)든 시계(時計)를 아무리 애써 흔드나 마침내 갈 리(理)가 없다”고 한다. 시계란 무릇 시간을 알리는 기계이지만, 그것은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고 미래의 시간으로만 나아가는 속성을 지닌다. ‘병든 시계’는 미래의 시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시간만 지속할 뿐이다. 미래가 없는 비정상적 암담한 현실 자체를 ‘병든 시계’가 상징한다. 시의 화자는 ‘병든 시계’ 탓만 할 수 없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방책(方策)을 세워 저 자석 기계(機械)를 고쳐 보라”고 했다. 당대

의 역사 현실을 ‘병든 시계’와 같이 미래가 없는 암담한 현실로 자각하면서도, 이런 불구의 병든 현실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시적 자아는 당대 현실을 ‘병든 시계’에 비유하여 불구의 비정상적 현실로 진단했듯이, 그런 현실에 놓인 자신도 불안과 우울의 병적 상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보 시절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면의 우울감과 불안감은 심화된다.

- ① 마음을 빚어내는 행복(幸福)도
반역(反逆)한 사람과 함께 가고 말았습니다

야비하고 가난한 마음이어서
있어도 쓸데없는 마음이외다

손에다 붙잡을 수 있다고만 하면
거리의 먼지 속에 내어버릴 걸—

- 〈마음〉(1928. 11. 27.)에서

- ② 소낙비 내릴 여름날 같은
이내 마음 속 우울(憂鬱)을
한 손에 뭉쳐
맑게 푸른 가을 하늘 밑 「그라운드」에서
「배트」가 두 동강 나거라! 하고 쳐버렸으면
「홈-런」과 같이

- 〈우울(憂鬱)〉(1929. 1. 9) 전문

시적 자아는 ①에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 행복을 거역하는 반역의 심정에 놓일 때가 있음을 “반역(反逆)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말았다고 표현했다. 현실순응보다 현실비판과 저항의 심리를 직접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내면심리가 현실 속에서 직접 행동으로 실천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실천력이 없는 이런 마음가짐은 결국 “야비하고 가난한 마음”에 지나지 않고 “쓸데없는 마음”으로 어디론가 날려버리고 싶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시적 자아는 결국 우울감에 시달리고 힘들어 하게 된다. ②의 시 〈우울(憂

鬱))에서는 이런 우울의 내면심리를 해소하고 싶은 욕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맑게 푸른 가을 하늘 밑 「그라운드」에서/「베트」가 두 동강 나거라! 하고 쳐버렸으면/「흙-런」과 같이” 우울을 일시에 날려버릴 상황을 상상한다. 이런 상상은 그러나 우울을 느끼는 근원인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실현되지 못한다. 다음 시 〈눈 내리는 이월(二月)의 밤〉은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현실이 타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종의 종말론에 가까운 회의와 절망감을 보여준다.

이날의 마지막을 가슴에 안고
아직도 얼음 풀리지 않는 싸늘한 땅바닥에
해 저문 봄바람에 힘없이 지는 꽃송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끝없는 평화(平和)와 감상(感傷)과 추억(追憶)과 환영(幻影) 속에
파묻으면서
천지(天地)도 마지막같이
때 아닌 눈이 고이고이 내리네

- 〈눈 내리는 이월(二月)의 밤〉(1929. 2. 7.) 중에서

“이날의 마지막”, “천지(天地)도 마지막”과 같이 ‘마지막’이란 어휘의 반복적 사용이 시사하듯, 이 시의 화자는 분명 자신이 위치한 시공간을 모두 종말론적으로 사고한다. 이런 종말적 시공간에서 때 아닌 눈이 내리는 상황은 반갑기보다 “싸늘한 땅바닥”의 현실을 지속시키기만 한다. 인간의 존재는 “힘없이 지는 꽃송이”인 ‘눈’과 동일시되면서 허무와 좌절감을 배가한다. 앞에서 살핀 시 〈눈〉과는 달리 ‘눈’에 대한 대척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시 〈눈〉에서 ‘눈’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동경을 보여주었지만, 이 시에서 ‘눈’은 인간의 내면에 쌓이는 슬픔 내지 절망감을 환기하는 정서적 상관물의 이미지로 묘사된다. 고보시절의 시가 이런 점에서 다소 감상적 감정 과잉을 보여주는 낭만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정옥의 시는, 앞서 살폈듯이, 비극적 현실인식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다. ‘소곡(小曲)’으로 발표된 민요시 〈물망초(勿忘草)〉(1929. 2. 19)에서 물망초를 바라보는 시선은 순수하고 곱다. 세월의 무

심함 속에서도 한 떨기 물망초는 “그 얼굴이 어여뻐서 하늘빛이라”고 했듯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내면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힘들고 암담한 현실인식 중에서도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건강하면서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고정옥의 고보시절 시에 나타나는 허무와 절망감은 따라서 막연한 감상주의(sentimentalism)에 빠진 결과가 아니다. 그의 첫 시작품에서부터 함축되어 드러나듯이, 그것은 암담한 민족 현실로부터 자각된 것이면서 그 허무와 절망감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열망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4. 경성제대 시절 시에 나타난 반제투쟁의 사회의식

경성제대에 입학한 후에 발표한 시 작품들은 어떠한가? <표 1>에서 보듯, 고정옥이 경성제대에 입학하여 쓴 시 작품들은 모두 9편(14번~22번)으로 기간을 따지면 1929년 말에서 1930년 초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경성제대 예과시절 독서회 사건에 연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기간에 발표한 시 1편(23번)을 포함하면 경성제대 시절 시는 넓게 보아 10편이 된다.

경성제대 시절에 발표한 시 작품들의 제목을 일별하면, 첫 작품인 <가을이 오니>(1929. 10. 1)를 제외하고,²¹⁾ 삶, 생활, 일기 등이 시사하듯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시적 제재로 삼거나, ‘동모여!’ ‘남이여!’처럼 제목 자체가 청자 지향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시 작품들임을 알 수 있다. 고보시절 시들이 대체로 행의 길이가 짧고 운문의 리듬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과 달리 대학시절 시 작품들은 대체로 시행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산문화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고보시절 시작품들이 현실과 연관된 내면의식의 토로에 치중된 주체 중심의 시라고 한다면, 대학시절 시작품들은 현실 자체를 매개로 하되 청자 지향의 메시지 중심 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고정옥의 대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정신적 성숙을 대학시절 시 작품들이 보여주

21) 시 <가을이 오니>(1929.10.1.)에서는 “달 밝은 가을밤은 방랑객(放浪客)의 구슬픈 로멘티즘 이외다”라고 하고, “구슬픈 노래 부르던 옛날이 그림습니다”라고 하여 고보시절의 감상적 낭만주의의 경향을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셈이다. 시 〈삶의 값(*값)〉을 살펴보자.

괴로움 많음이 삶의 값일까
밝은 삶이란 어리석은 사람들의 노력(努力)의 철학(哲學)일까
젊고 어린 옛날에 나 스스로
무더운 고민(苦悶)을 관미(觀美)하였으나
그는 지난 세기(世紀)와 세기(世紀)들의 무용(無用)한 감상(感傷)이었다
서 푼짜리 자유(自由)를 연약(軟弱)한 감정(感情)의 목에 걸고 윈 겨울밤이
다 새이도록
천정(天井)의 거미줄만 똑바로 쳐다 본 뒤의 공리(功利)는 이 몸과 이
마음을 차디찬 이불 위에 그대로 남기어 두었을 뿐이었다
그 모든 헛수작이 나의 타고난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소산(所産)이었을지나
이제 시대착오(時代錯誤)의 정지(靜止)를 버리고
새 세기(世紀)의 전진(前進)의 나래를 탄 나의 희망(希望)은
밝고도 복잡한 거리에서서
투명(透明)한 사색(思索)과 판단력(判斷力) 있는 이지(理智)를 앞세우고
옛날의 치기(稚氣)를 조소(嘲笑)하노라 오— 이 웃음! (11월(十一月) 2일(二日))
- 〈삶의 값〉(1929. 11. 6.) 전문

이 시는 “젊고 어린 옛날”의 ‘나’와 결별하는 선언문이면서 새 세기를 맞이한 ‘나’의 각오를 천명하는 선언문이기도 하다. 그 옛날에는 “고민(苦悶)을 관미(觀美)”하고 “무용(無用)한 감상(感傷)”과 “연약(軟弱)한 감정(感情)”에 빠져 있었으며, 몸과 마음을 다해 추구했던 자유도 치기에 의한 “서 푼짜리 자유(自由)”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고민, 감상, 감정, 치기 등의 어휘가 말하듯, 과거의 ‘나’는 주관적 감정에 치우쳐 세상을 보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노력(努力)의 철학(哲學)”을 신봉했다고 반성한다. 이제 이런 시대착오적 자아를 버리고 새 세기를 맞아 전진하는 자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투명(透明)한 사색(思索)과 판단력(判斷力) 있는 이지(理智)”를 가져야 한다고 선언한다.

위에서 말한 “투명(透明)한 사색(思索)과 판단력(判斷力) 있는 이지(理智)”는 어떤 것인가? 이즈음 고정옥이 대학 입학 후에 참여했던 독서회 활동을 거론

할 수밖에 없다. 시 〈삶의 갑〉을 쓴 때를 작품 끝에 11월 2일로 밝히고 있는데, 이때는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의거가 일어나기 하루 전날이다. 시 작품 발표는 이보다 늦지만, 이 시는 당시 고정옥이 앞으로 취할 가치관과 사상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다. 경성제국대학 6회로 예과에 입학한 고정옥은 광주학생의거가 일어나기 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시 〈가을이 오니〉가 발표된 1929년 10월 초와 시 〈삶의 갑〉이 발표된 1929년 11월 초 사이에 비밀결사의 성격을 띠고 이미 결성되어 있었던 독서회에 참여하여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충우(李忠雨)가 당시를 회고하는 글을 보자.

예과의 조선 학생들끼리도 자신이 속한 소그룹 멤버 외에는 누가 독서회에 참가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지 못했다. 6회 입학생 가운데는 신현중(愼弦重), 최기성(崔基晟), 정태식(鄭泰植), 고정옥(高晶玉), 김해균(金海均) 등이 독서회에 간여했다. 독서회 토론과정에서는 자신들의 활동이 민족운동이나, 사회주의운동이나를 놓고 왈가왈부한 때도 있었다.²²⁾

독서회에 가담한 인물들 중에 고정옥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정옥은 당시 독서회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독서회 회원들의 활동이 민족운동이나 사회주의운동이나를 두고 토론을 했다고 했지만, 사상학습의 중심 자료들은 사회주의 이론서였다고 본다. 그것은 “독서회가 채택하고 있는 서적은 부하린의 「유물사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연구」 1, 2, 3권 등으로 이들 책을 읽고 3~4명씩 모여서 토론을 했다”²³⁾는 진술을 참고하면, 독서회 회원들이 읽은 서적들은 거의 사회주의 이론서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당시 사회주의운동은 민족운동과 깊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둘이 쉽게 결별되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이제 고정옥이 시 〈삶의 갑〉에서 말한 “투명(透明)한 사색(思索)과 판단력(判斷力) 있는 이지(理智)”는 사회주의이론에 입각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독서회 활동에 참가한 이후 고정옥의 관심은 ‘집(숙소)-자아’에서 벗어나

22)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158쪽.

23) 이충우, 위의 책, 같은 곳.

서 ‘거리-민중’으로 바뀌게 된다. 시 〈생활(生活)의 거리〉(1929. 11. 17)에서 시의 화자는 “생활(生活)을 점치는/수(數)많은 영리(伶俐한 사람들” 또는 “생활(生活)의 거리에서 몸부림치는 현명(賢明)한 떼들”을 향하고 있다. 이들 거리에서 점치거나 몸부림치는 영리한 사람들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바로 일제의 민족차별에 항거하는 광주의 학생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시 〈동모여! -조선(朝鮮)의 학도(學徒)들에게〉(1929. 12. 20)는 고정옥의 시적 발언이 같은 동료 학생들을 분명하게 향해 있음을 보여준다. 선언적이고, 설득적인 목소리로 청자인 동료 학생들을 향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 시는 묘사시(descriptive poetry)가 되지 않고 이념을 선전·선동하는 아지프로(agi-pro)시로서의 진술시(statement poetry)²⁴⁾가 된다.

동모여—

우리는 할 일 많은 이 땅의 젊은이로다
우리의 두 어깨에는 이 땅의 앞날이 무겁게 실려 있지 않는가

오늘 어제 우리는 힘써 배워서
이 땅의 암흑(暗黒)과 무지(無智)를 밝히고 가르치자
무더운 싸움터에서 피 흘린 우리들
반드시 앞날엔 승리(勝利)의 노래 부르리니
만약(萬若) 우리 전사(戰士)들 가운데
십팔세기(十八世紀)의 시인(詩人)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의 시(詩)를 말살(抹殺)하자
타락(墮落)의 유흥(遊興)에 빠진 자(者) 있다면
그의 유흥(遊興)을 빼앗아서 버리자
아무 할 일 없는 나라의 젊은이들처럼
젊은 감격(感激)을 노래하는 자(者) 있다면 그 노랫가락마저 훔쳐버리자
공상(空想)과 환멸(幻滅)의 초현실주의자(超現實主義者) 있다면
채찍으로 그를 몰아 거리로 내어 쫓자
그리고 또 천치(天癡)와 반역(反逆)조차 있고 하면

24) 묘사시와 진술시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논의는 김준오, 『시론』, 제4판, 삼지원, 2017, 91쪽, 102~105쪽 참조할 것.

우리는 천치(天癡)를 가르치고 반역(反逆)을 간(諫)하자
 - 〈동모여! -조선(朝鮮)의 학도(學徒)들에게〉(1929. 12. 20.)에서

이 시에서 청자로 호명되는 ‘동모’는 사회주의사상을 같이 하는 ‘우리’와 공동체를 이루며, “이 땅의 앞날”을 위해 투쟁하는 젊은이들이며 또한 ‘우리 전사(戰士)들’이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전위로서 사상적 일체를 이루는 동지들이다. 이들에게 18세기의 낭만주의 시인들, 타락의 유흥에 빠진 자들, 공상과 환멸의 초현실주의자들은 모두 배척하고 말살해야 할 적이다. 이 시의 화자가 긍정하는 대상과 부정하는 대상은 이처럼 사회주의사상에 입각하여 동지와 적으로 분명하게 갈라진다. 과연 고정옥 자신은 어느 쪽인가. 이 지점에서 고정옥은 철저한 자아비판과 각성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시가 〈감정(感情) 양기(揚棄)〉(1930. 1. 21)이다.

나는 한(限)없이 받은 사람이다
 별레만도 존재가치(存在價值)조차 없는 적은 그들이
 나를 곡해(曲解)하며 오해(誤解)한들 나에게 무슨 상관(相關)이 있느냐
 인주의자(個人主義)를 들추는 것은 아니건만
 『과-테』는 『모든 것을 나에게겐 무(無)다』라고 부르짖지 않았느냐
 ……(중략)……
 달아나는 용사(勇士)의 앞길을 막은 연약한 감정(感情)—
 내 발길에 채여 하수도(下水道) 밑에서 죽어버리라
 감정(感情)을 버리기 전(前)에는 백(百)퍼-센트의 천재(天才)도 생명(生命)
 을 잃고
 불같은 정의(正義)도 힘을 잃나니
 나는 모든 값없는 먼지의 감정(感情)을 불사르려 한다
 목 비틀라 한다 발길로 차려 한다

- 〈감정(感情) 양기(揚棄)〉(1930. 1. 21.)에서

위 시에서 첫 행의 “나는 한(限)없이 받은 사람이다”는 발언은 함양에서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하고 또한 집안의 도움으로 학업을 지속했던 고정옥이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계급 혁명을 위한 전위로 나서기에 한계가 있다는 솔직한 자기고백이면서 동시에 자아비판의 성격을 지닌다. 자아비판

은 철저한 자아혁신을 요구한다. 그것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개인주의자로서의 근성인 연약한 감정을 청산하는 데서 가능하다. 위 시는 이처럼 자기고백-자아비판-자아혁신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회주의자로서의 사상적 전환을 꾀했음을 보여준다.

고정옥의 시는 내부의 적인 개인주의적 감정을 버리고 철저한 자아비판을 거침으로써 좀 더 자신 있게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고, 선전·선동을 위한 강력하고 직설적인 어조를 띠게 된다. 시 〈동모여 나아오라 우리의 일터로〉(1930. 2. 5.)는 이런 면모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내 이제 있는 힘 다하여 소리치노니
동모여!
나아오라! 우리의 일터로—
썩었다 사라지는 봄날의 눈처럼
어설픈 치정(癡情)을 울목에 던지고
힘 세인 두 팔을 하늘 높이 치어들고
오랫동안 무덤게 썩어오던
도야지고기의 구토(嘔吐)를
바람 가득한 출전(出戰)의 문턱에서
청산(清算)을 하고 기쁨의 둥근 눈 들어
전 인류(全人類)의 미래(未來)를 가슴에 안고
용감(勇敢)하게 쏘다니는 우리의 일꾼을 보라!

- 〈동모여 나아오라 우리의 일터로〉(1930. 2. 5.)에서

계급적 연대자로서 동무를 불러내는 이 시는 “있는 힘 다하여” 소리친다고 했듯이, 부르주와와 감정과 욕망을 청산하고 이제는 “전 인류(全人類)의 미래(未來)”를 위한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여기서 “전 인류(全人類)의 미래(未來)”는 사회주의혁명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코민테른의 노선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고정옥이 추구한 사회주의의 노선에서 ‘민족’의 문제는 배제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경성제대의 우리말 교가를 따로 제작하여 부르는 데 고정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과 시 〈님이여!〉(1930. 4. 6)에서 애타게 부른 ‘님’의

존재가 민족의 해방과 깊이 결부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우리말 교가 제작과 관련된 증언을 보자.

조선 학생들이 학교 당국에서 제정한 교가를 배척하고 우리말 교가를 따로 만들어 부른 일이 있다. 우리말 교가의 작사자는 6회의 고정옥(高鼎玉)(문B)이지만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의 의견을 들어 작사했고, 이화(梨花)여전 음악교수 안기영(安箕永)이 작곡을 했다.

『면동은 새힘으로 닥쳐 왔으니

우리의 할 일은 태산같도다

동무여 나오라 우리의 일터로, 상아탑 기만을 발길로 차고……』²⁵⁾

현재는 1절만 기억하고 있는 우리말 교가의 제작을 위해 여럿의 의견을 들어 작사했다고 했지만, 작사자의 이름으로 고정옥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교가 작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절의 가사에서 “동무여 나오라 우리의 일터로”라는 구절은 이미 논의한 시 〈동무여 나오라 우리의 일터로〉의 제목과 거의 같고 “발길로 차고”의 표현도 시 〈감정(感情) 양기(揚棄)〉에서 이미 사용한 바 있다. 이 우리말 교가를 6회 조선인 입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먼저 익히고 7회 조선인 입학자들에게도 익히게 했다. 교내에서 내놓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교외에서 부르면서 민족의 얼을 새겼다고 이충우는 증언하고 있다.²⁶⁾ 시 〈님이여!〉에서도 민족의식이 절절히 토로되고 있다. 작품을 보자.

님이여!

지나간 겨울날 사나운 눈보라가

너무나 가엾게 태어난 그대의 몸을

열 해에도 또 열한 해 꾸준히도 못살게 굴어

오 그다지도 어여쁘던 옛날 그대의 얼굴이

오랫동안 병상에서 신음한 사람처럼

이제는 보기에도 끔찍하게 여위었나이다

25) 이충우, 앞의 책, 169쪽.

26) 이충우, 앞의 책, 같은 쪽.

사나이 두 눈에 애달픈 눈물 서리우고
 순정에 날뛰든 자유로웁던
 그대의 옛날을 눈앞에 어리어 보오니
 그칠 줄 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참아 견잡을 길 아득하외다
(중략).....
 옛날의 즐겁든 노래 억울한 시집살이 노래 그리고
 이제 봄 맞은 옛터에서 생이별한 지 스물하고 또 한 해만에 뜨거운 가슴
 마주치는 노래
 오늘 밤 어스름 달밤 아래 저 강에 상앗배 띄워 고이고이 온 노 저어 드리
 오리니
 님이여 웃음 치며 노래 부르소서
 저 들이 저 강이 저 산이
 님의 아름답기 금줄같은 목소리에 길게 울던 옛날에 목마른 가슴 축이려
 노래 부르소서! 소리 높이 맑게 웃음 치면서 님이여—
 - 〈님이여!〉(1930. 4. 6.)에서

위의 시는 ‘님’을 대상화한 연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 ‘님’에 대한 애달픈
 마음과 함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하는 연시의 형식이다 보니 시적 화자의 감
 정도 흥분되어 반복적 어휘와 감탄어구가 많고, 시행이 무려 47행으로 풀어
 져 있다. ‘님’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한용운의 시에 비견될 수 있으나, 감정의
 절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설적 어법이 많아 비유와 상징의
 수사법을 주로 쓴 한용운의 시적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시에서 주목되는 점은 ‘님’에 대한 애타는 절규를 듣게 된다는 점이다.

고정옥의 시에서 ‘님’은 어떤 존재이기에 애타게 절규하는 대상이 되는가?
 한용운의 시에서 ‘님’이 복합적 의미를 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시에서 ‘님’
 은 명시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님’이 태어나서 “열 해에도
 또 열 한 해” 또는 “스물하고 또 한 해”를 지났다는 표현에 의해서 명료화되
 기 때문이다. 작품을 쓴 1930년을 기준으로 하면, 1910년 일제의 강제 조선
 병합 시기부터 21년째 시달려온 존재가 바로 ‘님’이 되는데, ‘님’은 그래서 쉽
 게 ‘조국’으로 환원된다. 일제의 조선 강제 병합이 실제로는 8월 29일 여름이
 지만, 이 시에서는 겨울로 설정되어 있다. 그때 “너무나 가엾게 태어난 그대”

인 ‘님’은 “꾸준히도 못살게” 구는 일제의 횡포와 탄압 때문에 21년이 지난 세월에도 “어여쁘던 옛날 그대의 얼굴”은 병상에서 신음하는 사람처럼 끔찍하게 여윈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 시의 전반부는 국권을 상실한 조국의 뼈아픈 현실을 이처럼 ‘님’에 대한 비극적 모습으로 환기하고 있다.

고정옥의 고보시절 시도 그랬듯이, 대학시절 그의 시도 비극적인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이를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을 노래하는 특성을 보여 주되, 그 어조는 더욱 강력하고 의지적이다. ‘님’은 가혹한 탄압과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옛날의 즐겁던 노래”를 간직하고 있고 “아름답기 금줄같은 목소리”와 “옛날에 목마른 가슴”을 지녔다. “저 들이 저 강이 저 산이” 웃음을 치도록 소리 높이 맑게 노래를 부르기를 바라는 염원은 다시 되찾아야 할 21년 전의 ‘님’이며, 그것은 바로 조국의 해방에 대한 염원임을 알 수 있다. 고정옥의 시가 전반적으로 감정의 절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작품들이 많고, 성글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아직 세련된 수준을 이루지 못한 한계를 분명 지녔다. 그렇지만 그가 시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당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심각한 고뇌로부터 전해지는 진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사회의식과 민족의식이 결부된 의미심장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고정옥은 독서회의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또한 회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점차 강경한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진 독서회는 1931년에 들면서 실천적 운동조직인 반제동맹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충우에 따르면,²⁷⁾ 고정옥은 반제동맹의 결성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반제동맹의 규약과 강령 작성, 「독서회 뉴스」 제작, 동지의 규합 등에서 핵심 인물은 아니어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반제동맹의 조직은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반전격(反戰檄)」이라는 격문을 만들어 9월 28일 조선극장 등에서 비밀리에 배포하는 등 행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제동맹 가담자 50명이 검거되었다가 최종 19명이 공판에 회부되었다. 1932년 8월 16일 예심

27) 이충우, 앞의 책, 184~185쪽 참조.

이 종결되고 11월 24일 최종 언도가 내려졌다. 주동자 신현증을 비롯한 3명이 3년 또는 2년의 징역형을 받고, 고정옥, 최기성 등 나머지 16명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은 살지 않았다. 고정옥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²⁸⁾

고정옥은 반제동맹 가담 사건으로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고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3년의 집행유예 기간(1933~1935)에 고향 함양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민요를 수집했다는 증언이 있으나²⁹⁾ 이를 실증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정옥이 민요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가졌다는 한 증거로 고보시절 전승 민요인 〈못 가갯네〉를 신문에 발표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상황에서 함양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을 돌면서 민요 조사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고정옥의 민요 수집은 1936년 재입학 후에 조선 어문학을 전공하면서 진행되었던 일임은 분명하다.³⁰⁾

고정옥은 집행유예 마지막 해인 1935년에 들면서 다시 문학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때는 본명을 숨기고 ‘고위민(高渭民)’ 또는 ‘위민(渭民)’이란 필명을 사용했다. ‘고위민(高渭民)’으로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헉슬리(Aldous L. Huxley, 1894~1963)의 소설을 번역한 〈초연(初戀)〉을 『조선일보』(1935. 5. 3~5. 16, 8회 연재)에, 소설 〈재회(再會)〉를 『조선중앙일보』(1935. 10. 25~11. 3, 8회 연재)에 발표했다. ‘위민(渭民)’이란 필명으로 시 〈첫녀름(*첫여름)〉을 『조선일보』(1935. 7. 12)에 발표했다.

번역소설 〈초연〉은 첫사랑의 자유로움 감정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고, 창작소설 〈재회〉는 인생에 대한 대처법을 친구와 재회하여 토론하는 내용을

28) 이충우, 앞의 책, 184~196쪽에 반제동맹의 진행, 검거, 공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공판 회부자 19명 중에서 고정옥을 비롯한 16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에는 당시 경성제대 야마다(山田三良) 총장이 여러 요로에 선처를 호소한 덕이 컸다고 한다(이충우, 앞의 책, 193쪽). 『동아일보』(1932.8.17~31.)에 게재된 「성대(城大) 반제동맹(反帝同盟) 예비결정서(豫審決定書)에도 반제동맹의 진행과정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29) 신동훈, 앞의 글(『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상)』), 287~288쪽.

30) 고정옥이 함양지역을 중심으로 수집한 민요 자료가 『조선민요연구』(1949)에 토대가 되어 민요론이 구축된 면모와 특징을 논의한 바 있다. 박경수, 앞의 글(『고정옥 민요 연구의 관점 변화와 인용 민요 자료의 성격』), 7~39쪽. 박경수, 『민요의 지역성과 장소사랑의 민요학』, 민속원, 2026, 348~374쪽 재수록.

보여주고 있다. 두 작품이 사랑과 인생에 대한 철학적 고뇌를 주인공이 보여 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자각이나 투쟁의지를 보여주는 비판적 리얼리즘이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들과는 대척적인 지점에 있다. 비록 1편에 불과하지만, 시 〈첫녀름〉은 앞선 시기인 경성제대 예과시절에 발표한 시 작품들과는 현저히 다른 시세계를 보여준다.

깊은 산 산고늘에 잡힌 물같이 포오란 노을에
유수(幽邃)히 가리운 원산(遠山).
그 산(山)을 두 팔로 안으려면
내 몸에 나래 돌아 하늘로 오를 것 같구나.

○

꿈 많은 소년(少年)의 희망(希望)과도 같이
거침없이 넓다란 파아란 드을(*들).
태양광선(太陽光線)의 열정(熱情)에 내 머리는 불타고,
엷은 비단결같이 부드럽게 팔랑이는
피(嶺) 넘은 바람결은
환상(幻想)에 잠긴 내 두 몸을
어여쁜 처녀(處女)의 속삭임과 같이 희롱(戲弄)하며
내 심장(心臟)의 탁(濁)한 피를 씻고 흘러가노니
오오 첫여름의 천지(天地)에 범람(汎濫)한 맑은 판타지여!

- 〈첫녀름〉(1935. 7. 12.)에서

전체 4연으로 구성된 시에서 3~4연이다. 1~2연은 인용하지 않았지만, 높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천마(天馬)인 페가수스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작은 배에 흰 돛을 달고 구름같이 떠다니고 싶다고 했다. 1~2연의 시상 전개 방식은 3연에서도 연속적이다. 멀리 노을에 물든 산을 날개 돋은 몸으로 안아 하늘로 오를 것 같다고 했다. 시적 자아가 비현실적 환상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이다. 현실과 시에 묘사된 세계가 상극(相克)을 이룬다. 4연은 이런 비현실적 환상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꿈 많은 소년(少年)의 희망(希望)”이라 하고, “환상(幻

想)에 잠긴 내 두 몸”이며 “맑은 판타지”인 것으로 노래한다. 현실적 삶에 대한 어떤 고뇌나 갈등도 시에서 언술되지 않는다. 오히려 “뫼(嶺) 넘은 바람결”이 “내 심장(心臟)의 탁(濁)한 피를 씻고 흘러가노니”라고 했다. 당대의 사회 현실에 분노하고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반제투쟁의 길을 걸었던 과거 시인의 자아는 작품 속에서 철저히 소거되어 있다. 만일 그런 현실적 자아가 있다면, 그것은 마치 “심장(心臟)의 탁(濁)한 피”를 가진 자아로 부정적이면서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시 〈첫너름〉은 이런 점에서 고정옥 시인이, 비록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일경의 심한 고문을 겪고 대학 퇴학에 학업 중단이란 엄벌을 받게 된 이후 사상 전환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 그것이 일제의 사상 강요에 의한 것이든 자기반성의 결과이든 내면의 심각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로서는 당시의 심경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단계이다.

그런데 위의 시를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다. 1930년대 발표한 신석정(辛夕汀, 1907~1974)의 목가적인 서정시가 이 지점에서 떠올려진다. 신석정의 시에 대한 해석 역시 다양하지만,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반대급부로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시인의 염원이 숨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³¹⁾ 어떤 정신적, 신체적 압박과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 그것이 비현실적 환상 세계를 꿈꾸는 시의 문맥 이면에 내재하고 있다고 고정옥의 시를 해석할 수도 있다. 상극(相克)을 통한 초극(超克)을 보여준다는 말이다. 이 초극은 다시 상생(相生)의 길을 찾게 된다. 그것은 고정옥이 1936년 경성제대에 재입학한 이후 ‘조선어문학’을 전공하면서 생활에 밀착된 민요를 연구하는 길로 나아간 길이 아니었을까 한다.

31) 김옥성은 신석정의 초기시에 대해 “파라다시스적 자연의 이미지는 고통 받는 공동체가 도달하여야 할 이상으로 제시되면서 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함축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김옥성, 「신석정 초기시의 근대적 자연미와 공동체 의식」, 『한국학』 1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191쪽.

5. 마무리

이 글은 고정옥이 경성제2고보 시절과 경성제대 예과시절에 발표한 시 작품들을 가능한 대로 찾아서 그의 시가 보여주는 내면적 자아성찰과 사회의식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시적 자아가 겪는 현실에 대한 고뇌와 성찰이 어떤 변곡점을 이루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세계의 변화가 시인의 생애 궤적과 연동되어 있는 국면들을 함께 살피고자 했다.

고정옥이 발표한 시로 모두 23편을 찾을 수 있었다. 경성제2고보 시절에 발표한 시가 13편이고, 경성제대 예과시절에 발표한 시가 9편, 이후 본과에 재입학하기 전 집행유예 기간에 발표한 시가 1편이었다. 마지막 시 1편은 본명을 숨기고 ‘위민(渭民)’이란 필명으로 발표된 것이다.

고정옥의 시는 고보시절 시와 대학시절 시와 구분해서 살폈다. 전자의 시는 대체로 시적 자아의 내면의식을 형상화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고, 후자의 시는 사회현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함께 청자 지향적 설득적 목소리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시와 달리 후자의 시에서 서술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작품의 길이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 점도 특징이다.

고보시절 고정옥의 시는 당대의 현실을 ‘병든 시계’와 같이 비정상적인 세상으로 보는 비극적 세계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는 암담한 민족 현실로부터 자각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 세계인식에서 자아의 존재는 왜소화되거나 우울과 허무감에 빠지면서 때로는 종말론적 세계인식으로 치닫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그렇지만 시적 자아가 허무와 절망감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이나 기대로 표출되었다.

고정옥의 대학시절 시작품들은 현실 자체를 매개로 하되 청자 지향의 메시지 중심 시로 대화회적 인식을 뚜렷하게 표명하고 있었다. 특히 독서회 활동에 참가한 이후 고정옥의 시는 ‘집-자아’에서 벗어나서 ‘거리-민중’으로 시선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들 시는 개인주의적 감정을 버리고 자아비판을 거치는 한편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사회의식과 민족의식이 결부된 현실인식을 보여주었다.

이 글은 고정옥의 시를 중심에 두고 시인으로서의 고정옥의 면모를 본격 논의한 글이다. 이를 통해 고정옥의 시적 지향 특징과 궤적을 파악하면서 청년기에 지녔던 자아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게 되었다. 고위민(高渭民) 외에 또 다른 필명으로 고영민(高嶺民)을 썼을 개연성을 두고 이를 실증하는 과제를 남겼다. 청년기의 문학관과 사회사상에 이어진 고정옥의 학문적 성과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정옥 시의 성격과 위상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당대 다른 시인들의 시와 비교하는 논의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 김옥성, 「신석정 초기시의 근대적 자연미와 공동체의식」, 『한국학』 1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동경: 제일서방, 1933.
- 김준오, 『시론』, 제4판, 삼지원, 2017.
- 노상래, 「『청량』 소재 이중어 소설에 대한 일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35,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 박경수, 「고정옥 민요 연구의 관점 변화와 인용 민요 자료의 성격」, 『한국민요학』 57, 한국민요학회, 2019.
- _____, 『민요의 지역성과 장소사랑의 민요학』, 민속원, 2026.
-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상)」, 『민족문화사연구』 7,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1995.
- _____, 「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하)」, 『민족문화사연구』 8,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1995.
- 이재현 외, 『함양지역의 인문학적 과제』, 청동거울, 2019.
-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Abstract〉

The Trajectory of Self-Reflection and Social Consciousness in Go Jeong-ok's Poems

Park, Kyung-Su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as many of Go Jeong-ok's poems as possible and to specifically reveal the aspects of inner self-reflection and social consciousness displayed in his poetry. In particular, it seeks to examine how the anguish and reflection on reality form turning points in Go Jeong-ok's poems, and to explore the phases linked to the trajectory of the poet's life.

A total of 23 poems by Go Jeong-ok could be found. There were 13 poems published during his time at Gyeongseong Second High School, 9 poems published during his time in the preparatory course at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and 1 poem published under the pen name 'Wimin(渭民)' during his probation period before re-entering the main course.

Most of Go Jeong-ok's poems from his high school days are works that express the inner consciousness regarding the world in which the poetic self finds itself. He views the reality of the era as an abnormal world, akin to a "sick clock." This is a tragic worldview awakened by the bleak national reality. Within this tragic worldview, the existence of the self is diminished or plunges into depression and nihilism, sometimes even spiraling into an eschatological worldview. However, the poetic self is not consumed by emptiness and despair but is expressed through aspirations or expectations for a new world.

Go Jeong-ok's poems from his college years is predominantly characterized by a listener-oriented, persuasive voice alongside a concrete awareness of social reality. As the length of his works increases, they

exhibit a narrative tendency. As message-centered poems oriented toward the audience, they clearly express a social awareness. This reflects a shift in perspective from the “home-self” to the “street-people” following his participation in a reading club. His work demonstrates a perception of reality that combines social and national consciousness while reinforcing class solidarity.

In this article, the possibility was raised that another pen name, Goryeongmin(高嶺民), was used in addition to Gowimin(高渭民), and the task of verifying this was left as a research task.

* Key Words: Go Jeong-ok, Go Wi-min, tragic worldview, social consciousness, national consciousness

· 논문투고일: 2026년 6월 5일 · 심사완료일: 2026년 7월 21일 · 게재결정일: 2026년 7월 27일
--